

17일 Market Index			
코스피	2843.29	코스닥	829.41
	(-22.80)		(-10.20)
금리 (연이자율)	3.050	환율 (원/달러)	1379.40
	(+0.015)		(-5.50)



다시 기업가정신
구광모
LG그룹 회장
03

이노베이션·E&S 합병... SK, 재무구조 개선 힘 받는다

이노 산하에 독립형태 E&S 편입 합병비율 자산가치 기준 1대 1.2 내달 중 임시 주총 등 후속절차 내부불만 여전해 추가 설명 필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추진되며 '100조' 규모 에너지 기업이 탄생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에너지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다음 달 중으로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사의 최대주주인 SK㈜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4면)

17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에 따르면 양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SK E&S는 CIC (Company in Company) 형태로 독립된 회사로서 SK이노베이션 산하에 편입될 예정이다.

SK그룹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합병 비율은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게 유력하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현재 자산에 비해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합병을 하는 게 회사에 유리하다. 반대로 SK E&S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대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할 경우 (주)SK가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신설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주)SK는 SK E&S에 대한 지분을 90% 갖고

있어, 주가를 기준으로 SK E&S 가치가 SK이노베이션보다 높을 수록 합병 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

구체적인 합병 비율은 1:1.2 비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비율이란 합병회사 간 주식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에 따라 합병 과정에서 어느 회사가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는지 결정된다.

SK그룹의 에너지 사업 중간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정유, 화학, 자원개발 등 화석연료 기반의 회사로 보유 자산만 약 86조원에 달한다.

또 비상장사로 '알짜'로 알려진 SK E&S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재생에너지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로 19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11조1672억 원과 영업이익 1조3317억 원을 기록했다.

앞서 SK그룹은 사업 리밸런싱(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에너지 중간 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추진해 왔다. 그룹 에너지 사업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금창출력이 뛰어난 SK E&S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여전히 내부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실적이 좋았던 SK E&S는 이번 합병으로 인해 성과급 축소,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 등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부 관계자는 "SK E&S의 수익성이 좋고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



메트로신문 '100세 플러스 포럼' 성료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에서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 'SK온 살리기'의 소방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인원이 많다"라며 "주후 IPO 가능성도 사라지다 보니 구성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 설명했다.

SK온은 당장 재무부문의 급한 불을 끄는 것은 가능하나,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직원들의 임금 부분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SK온은 흑자 전환 때까지 모든 임원의 연봉을 동결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양질의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만큼 임직원들의 연봉 협상도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금리인하·트럼프 당선 관측에 국제금값 또 사상 최고치 경신

금 선물, 온스 당 2500달러 목전

하 가능성을 시사해 9월 인하 전망에 힘을 더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온스 당 2500달러를 목전에 뒀다. 고용-인플레이션 둔화에 미 연방 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9월과 11월에 금리를 연이어 인하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며 금 가격을 빠르게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선물시장 국제 금 가격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온스당 2467.80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38.90달러(1.6%) 오른 수준으로, 이날 국제 금 가격은 지난 5월 20일 기록했던 종가 기준 최고가인 2438.50달러와 장중 최고가인 2454.2달러를 모두 경신했다.

국제 금 가격은 연준이 오는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상승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앞서 발표했던 4-5월 고용률을 하향 조정했다. 이어 11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시장 예측을 하회하고 3개월 연속 둔화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오는 9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해졌다.

이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인

하 가능성을 시사해 9월 인하 전망에 힘을 더했다. 지난 15일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2%로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정책 완화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라면서 "1분기에는 추가적인 자신감을 얻지 못했으나, 지난주 수치를 포함해 2분기에 발표된 세 가지 수치는 상당 부분 자신감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 위치에 따르면 시장에서 전망하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에 육박한다.

지난 13일 발생한 충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금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트럼프는 주요 공약으로 높은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및 소비세·법인세 감세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화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 동맹국에 대한 군사 분담금 인상 요구, 대중 갈등 심화 등 '아메리카 퍼스트'로 일컬어지는 강경한 외교 원칙을 고수했던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안전 자산인 금의 선호를 끌어올렸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서울 등 수도권 '물폭탄'에 침수피해 속출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서울 하천 29개소 도로 4개소 통제

17일 오전 서울 등 수도권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기상청은 올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서울 전역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17일 정오 기준 서울 시내 하천 29개소와 도로 4개소(동부간선, 증산교, 사천교, 가람길)가 통제됐다. 침수 예보가 발령되면서 서남·동남·동북권 내 10개 자치구에서는 침수 재해 약자를 돕는 동행파트너 176명이 출동해 반지하 주

택 거주자 등의 안전을 살폈다.

시는 빗물펌프장 14개소와 저류조 6곳 등 방재시설을 가동했다. 서울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10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북부 지역의 피해가 컸다. 17일 오전 일찍부터 집중호우가 퍼부으며 침수 신고가 잇따랐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총 424건의 폭우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신호등 고장 신고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침수 신고 115건 ▲기타 69건 ▲토사 유출 21건 ▲교통사고 12

건 ▲나무 쓰러짐 4건 순이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근길 전동차가 운행을 멈추는 피해도 있었다. 17일 오전 8시부터는 경원선 의정부역~덕정역 구간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는 망월사역~의정부역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다. 전동차 운행은 50분 만에 재개됐다.

폭우로 집에 갇힌 시민이 긴급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께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집 안에 물이 들어차 사람이 갇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원희룡 "한동훈 댓글팀 사실이면 징역" /사진 뉴스스
▲ 與김장겸,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법' 발의

▲ 검찰, '대북송금·뇌물공여' 김성태 1심 판결에 항소
▲ 집중호우에 北 매설 '나뭇잎 지뢰' 유입 우려



▲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범죄 징계시효 늘려라"
▲ 행안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 제청 /사진 뉴스스